

# 한국 수출의류제품의 품목 특성 -1990년대를 중심으로-

지혜경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전임강사

## Characteristics of Export Articles in Korean Clothing Trade -Focused on the 1990's-

Hye-Kyung Ji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6. 12. 15. 접수 ; 2007. 1. 11. 채택)

### Abstract

Clothing exports of Korea has grown rapidly till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contributing Korean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from the 1990's, the amount, the world market share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lothing exports have declined. Based on these phenomen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xport articles in Korean Clothing Trade focused on the 1990's. Statistical data of clothing articles(SITC 84 : Articles of apparel & clothing accessories) were used. The relative importance, trade orientation tendency and unit price of each export clothing articl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On the relative importance, trade orientation tendency and unit price of each export clothing articles, outer garments or products that required complicated production process(e.g., coats, suits, ensembles, jackets, dress) had been decreased in the portion and weakened in the export orientation tendency. But one item in a set or casual wear like trousers, skirts, blouses, shirts, Jerseys, pullovers, T-shirts has been increased in the portion and risen in the unit price. These trends means that clothing exports of Korea were more focused on those category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n those articles were advanced.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can be contributed to establish the concrete clothing export articles strategies of Korean firms.

**Key Words:** Clothing trade(의류무역), Relative importance of each export clothing articles(수출비중), Trade orientation index(무역특화지수), Unit price of each export clothing articles(수출단가)

---

Corresponding author ; Hye-Kyung Ji

Tel. +82-2-760-4404, Fax. +82-2-760-4484

E-mail : hkjee@hansung.ac.kr

## I. 서론

한국의 의류수출은 1989년 92억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1995년에는 49억 달러(1995년 총수출 1,000억 달러 중 5.0% 차지), 2005년 23억 달러(2005년 총수출 2,844억 달러 중 0.8% 차지)로 규모가 계속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2005년 쿼터 폐지로 교역자유화가 더욱 진전된 상황에서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들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그 동안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이었던 미국, 일본에서의 시장 잠식을 가속화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세계 의류시장점유율은 1996년 2.3%에서 2004년 1.2%로 급격히 하락하였다<sup>1)</sup>.

1990년대 중반 이후 의류수출기업의 경영 환경은 세계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 기여해 왔던 의류수출산업은 2005년 쿼터 제한이 완전 폐지된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수출정책과 마케팅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의류수출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의류수출 기업들의 수출품목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1990년대 이후 세계 시장에 수출되었던 한국 의류수출 품목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총 의류수출이 절대적 감소를 보인 가운데도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으로서 경쟁력을 가진 품목은 무엇인지, 반대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품목은 어떤 것인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류수출 기업의 수출품목 전략 및 더 나아가 의류산업의 수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2005년까지의 장기간에 대한 분석 중 1차적 연구로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및 2005년 쿼터폐지가 시행되기 전인 1990~2000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세계시장으로 수출된 수출의류 품목들의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한국 의류수출의 품목 특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 2차 연구를 통해 2001년 이후의 세계 의류무역환경의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 의류수출 품목의 특성 및 영

향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1990년대와 비교하고자 한다. 품목 특성에 대한 분석은 첫째, 수출 비중의 변화 둘째, 무역특화경향의 변화 셋째, 수출 단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한국 의류수출에서 경쟁력을 있는 품목을 찾아내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며,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유럽 및 미국 등의 패션 선진국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저임금의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가지고 틈새시장을 확보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II. 이론적 배경

세계 의류수출시장은 2005년부터 그 동안 다자간섬유협정(MFA ; Multi-Fiber Arrangement)에 규제받아왔던 쿼터 제한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으로서 쿼터를 다량 보유하며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왔었으나 1990년대 이후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개도국에 의해 주요 수출시장이 잠식되면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sup>2)</sup>.

2005년 이전까지 세계 의류무역은 2차 대전 이후의 국제무역의 기본 질서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자유무역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규제, 운용되어 왔던 분야이다. GATT의 주도국이었던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1974년부터 쌍무협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산 섬유·의류 제품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MFA를 도입하여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 ;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이 발효되기 전까지 자국의 의류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sup>3)</sup>. 그러나 MFA는 GATT의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상반되는 각종 선례들을 남김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심한 반발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86년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쟁력 우위 분야인 투자, 서비스, 지적소유권 분야를 GATT 체제에 편입시키는 대신 그 반대 급부

로 개발도상국의 관심 분야인 섬유·의류분야에서 양보하는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협상을 시작하면서 1995년에 WTO 섬유협정을 맺게 되었다. WTO 섬유협정은 그 동안 MFA 하에서 시행되었던 쿼터제도를 폐지하고 GATT체제로 복귀시켜 자유로운 교역을 목적으로 한 한시적 협정으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섬유·의류교역에서의 쿼터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다<sup>4)</sup>.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2005년 이후의 세계 섬유·의류무역의 자유화에 대응하여 자국산 섬유·의류제품의 수요 확대를 꾀하고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양자간 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그러한 대응 전략의 하나로서 미국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및 2000년 무역발전법 2000(TDA 2000 ; Trade and Development Act 2000) 발효, 이스라엘, 요르단, 베트남과의 FTA 등을 통해 경제 불력을 형성하였고, EU도 1993년 단일 시장으로 출범한 이후 한국을 포함한 19개국과 섬유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은 블록경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여 지역간, 국가간 의류 무역구조를 재편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의류수출에도 수출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sup>5)</sup>.

2005년 섬유·의류 교역자유화는 MFA를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던 선진 수입국과 이를 안정적 수출선으로 활용하던 대량 쿼터 보유 수출국 모두에게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과의 무차별 경쟁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낮은 인건비를 통한 가격경쟁력 우위에 힘입어 세계 의류생산 및 수출 전초 기지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의류시장점유율이 1990년 8.9%(3위), 1995년 15.2%(1위), 2002년 20.6%(1위)로 상승하였다. 한편 멕시코도 1994년 NAFTA 발효 이후 미국의 비쿼터, 무관세에 힘입어 대미수출 및 점유율이 증가하였고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도 EU의 비쿼터, 무관세에 힘입어 EU를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

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 대만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한국은 세계 의류시장점유율이 1990년 7.3%(4위)에서 1995년 3.1%(9위), 2002년 2.0%(13위)로, 대만도 같은 기간 3.7%(7위), 2.1%, 1.1%(20위)로 크게 하락하였다<sup>6)</sup>.

1990년대 이후 한국 의류수출의 이러한 위상 변화는 첫째, 수출업체들이 인력난, 임금상승, 금융비용 등 제 생산비용의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한 것과 둘째, 후발개도국들의 생산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세계 시장을 잠식한 것이 주 요인이었다<sup>7)</sup>. 이러한 대내외적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의류수출산업은 새로운 수출전략과 산업발전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다.

OECD의 포스트 쿼터 시대에 대한 예측은 한국 의류수출업체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이면서도 의미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OECD는 포스트 쿼터시대에 섬유·의류산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동비 외에 신속 인도, 즉 시간을 좌우하는 항구시설이나 통관절차의 신속성, 물품인도기간과 양질의 직물에 대한 접근, 원산지 규정, fullpackage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sup>8)</sup>.

한국 의류수출산업은 생산 비용은 높지만 생산성과 다품종 소량생산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fullpackage 서비스 면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9)</sup>. 본 연구에서는 아직 세계적 명성의 브랜드력이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한국 의류수출기업들이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별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품목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한국 수출의류제품의 수출 비중에 따른 품목특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한국 수출의류제품의 무역특화

경향에 따른 품목특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한국 수출의류제품의 수출 단가에 따른 품목특성을 알아본다.

### 2.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UN의 “Commodity Trade Statistics”<sup>10)</sup>과 OECD의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stics”<sup>11)</sup>에 공표된 1990~2000년의 연도별 의류수출입액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의류수출 품목은 수출품목 분류 중 SITC 84 (Articles of apparel & clothing accessories)에 해당하는데, SITC 84는 의류 품목과 비의류 품목(손수건, 장갑, 넥타이, 모자, 양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1>과 같이 SITC 84 품목 중 의류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래의 의류 품목이 1990~2000년 동안에 한국 총 의류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6~76.9%였다.

### 3. 분석 방법

#### 1) 수출 비중의 변화 분석

의류제품의 품목별 수출 비중은 각 연도의 총 의류수출액 중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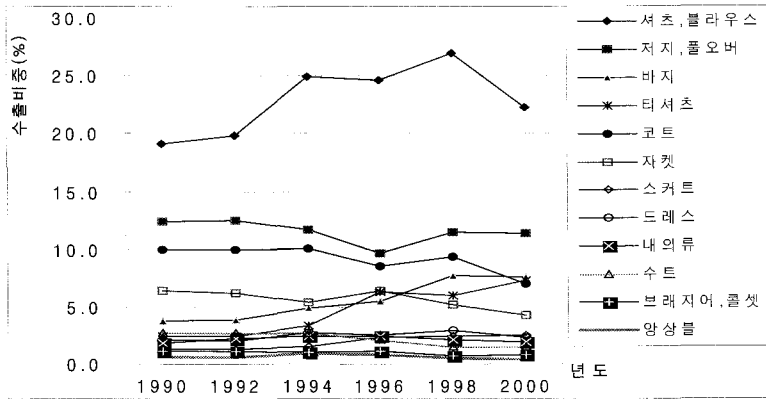
#### 2) 무역특화 경향 분석

무역특화 경향은 각 품목의 수출특화 혹은 수입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무역특화지수로 분석하였다. 무역특화지수는 한 나라의 무역이 특정 상품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며 또한 수출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무역특화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특정 품목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었는지 혹은 약화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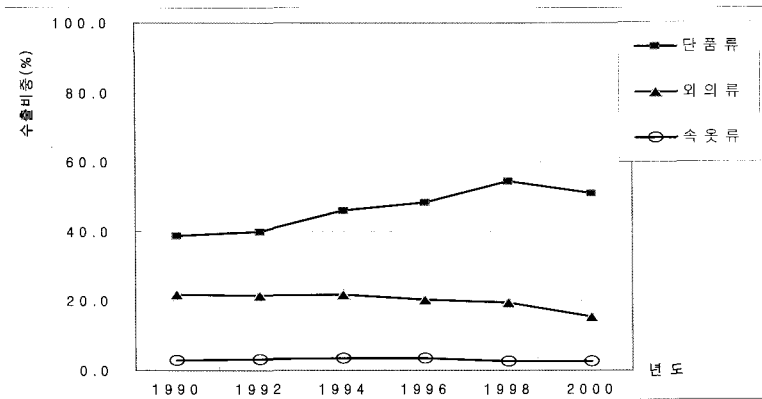
무역특화지수의 산출은 해당 상품의 순 수출액

<표1> 분석대상 수출의류 품목

품 목 (SITC 번호)			품 목 (SITC 번호)		
코트류	직물제	남성용 (8411) 여성용 (8421)	바지	직물제	남성용 (8414) 여성용 (8426)
	편직제	남성용 (8411) 여성용 (8421)		편직제	남성용 (84324) 여성용 (84426)
수트류	직물제	남성용 (84121) 여성용(84221)	셔츠, 블라우스	직물제 (8425)	
	편직제	남성용 (84321) 여성용 (84421)		편직제 (84425)	
양상블	직물제	남성용 (84123) 여성용 (84222)	저지, 폴오버류 티셔츠류	직물제	남성용 (8415) 여성용 (8427)
	편직제	남성용 (84322) 여성용 (84422)		편직제	남성용 (8437) 여성용 (8447)
자켓류	직물제	남성용 (8413) 여성용 (8423)	속옷류	직물제	남성용(8416) 여성용(8428)
	편직제	남성용 (84323) 여성용 (84423)		편직제	남성용(8438) 여성용(8448)
드레스	직물제 (8424)		브래지어, 콜셋류 (8455)		
	편직제 (84424)				



<그림1> 품목별 수출 비중의 변화 (I)



<그림2> 품목별 수출 비중의 변화 (II)

이 그 상품의 총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즉 동일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면 지수값은 0이 되고, 수출은 많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는 +100이 되어 완전 수출특화 상태를 나타내며, 반대로 수입은 많지만 수출이 없는 경우는 -100이 되어 완전 수입특화 상태를 나타낸다<sup>12)</sup>.

### 3) 수출 단가의 변화 분석

수출의류제품의 품목별 수출 단가는 \$1,000/metric tons 계산하였다.

##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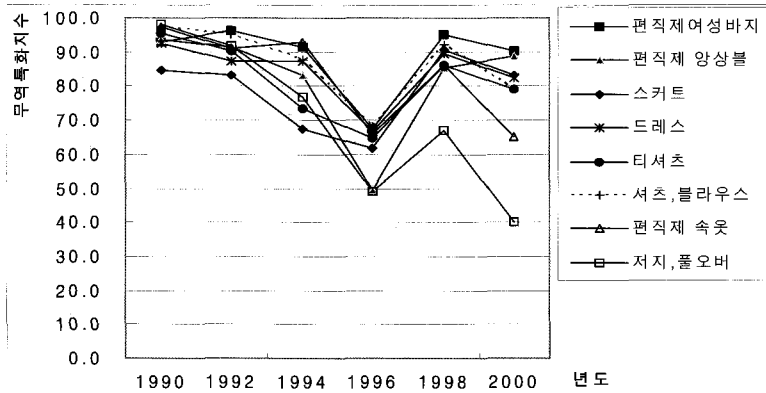
### 1. 수출 비중에 따른 품목 특성

한국 의류수출의 품목별 비중 변화를 보면, <그림1>과 같이 (남여 직물제/편직제) 셔츠·블라우스 > (캐주얼 편직제) 저지·폴오버류 > (남여 직물제/편직제) 코트류 > (남여 직물제/편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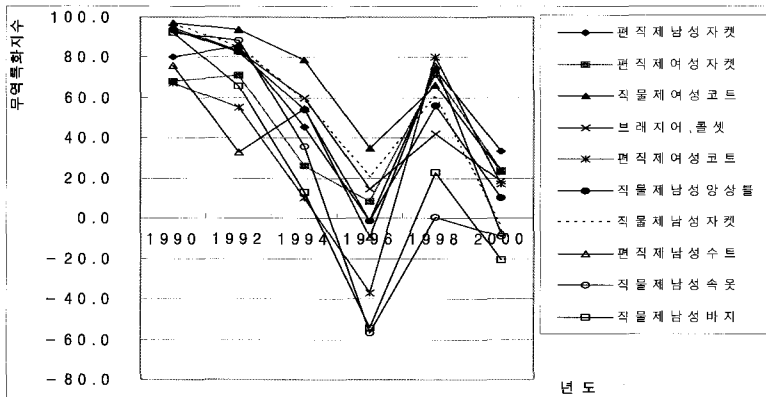
$$\text{무역특화지수} = \frac{X_{ij} - M_{ij}}{X_{ij} + M_{ij}} \times 100$$

$X_{ij}$  : 일정기간 동안  $i$  국가의  $j$  상품에 대한 총수출

$M_{ij}$  : 일정기간 동안  $i$  국가의  $j$  상품에 대한 총수입



<그림 3> 품목별 무역특화 경향의 변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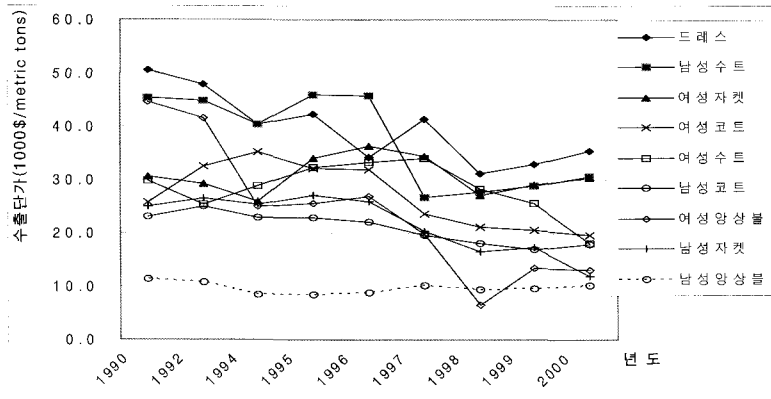
<그림4> 품목별 무역특화 경향의 변화 (II)

제) 바지, (캐주얼 편직제) 티셔츠, (남여 직물제/편직제) 자켓 > 수트, 드레스, 스커트, 내의류, 브래지어·콜셋류, 앙상블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도 (남여 직물제/편직제) 셔츠·블라우스와 (캐주얼 편직제) 저지·폴오버류가 총 의류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이들 품목에 치중한 수출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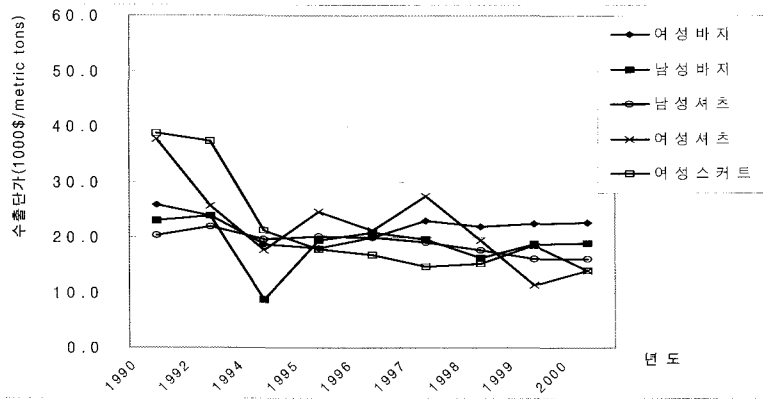
한편 총 의류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 이하이지만 의류수출 총액이 감소한 가운데 (남여 직물제/편직제) 바지, (캐주얼 편직제) 티셔츠, (여 직물제/편직제) 스커트 등과 같이 다른 아이템과 코오디네이트하여 입는 단품류는 증가하였고, (남여 직물제/편직제) 코트류, 수트와 같이 외의의 성격을 띠는 품목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그림2>에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생산과정이 필요하면서 외의의 성격을 띠는 코트, 수트, 앙상블, 자켓, 드레스 등이 1990년의 21.8%에서 2000년의 15.5%로 계속 감소한 점과 다른 의류품목과 매치시켜 입어야 하는 단품 및 캐주얼 성격의 바지, 스커트, 셔츠·블라우스, 저지·폴오버류, 티셔츠 등이 1990년의 38.9%에서 2000년의 51.1%로 계속 증가한 점을 연관시켜 볼 때 한국의 의류수출은 단품 및 캐주얼류, 편직제 성향이 강한 품목들의 비중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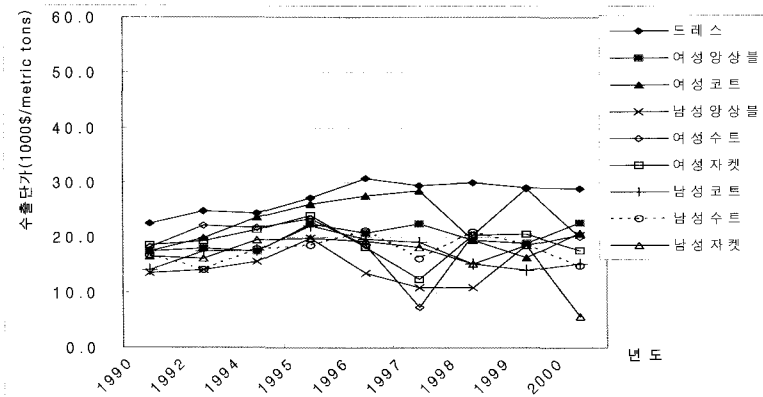
이와 같은 수출 비중 면에서의 한국 의류수출의 품목 특성은 수입국의 소싱(sourcing)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총 의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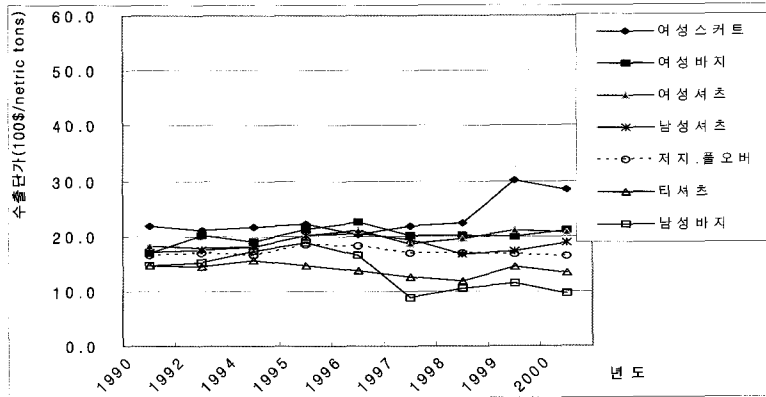
<그림5> 직물제 외의류 품목의 수출단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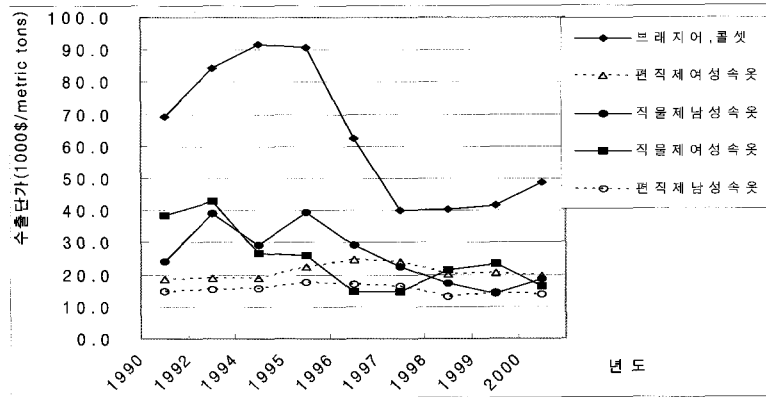
<그림6> 직물제 단품류 품목의 수출단가 변화



<그림7> 편직제 외의류 품목의 수출단가 변화



〈그림8〉 편직제 단품류 품목의 수출단가 변화



〈그림9〉 속옷류 품목의 수출단가 변화

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국들은 자국의 QR(Quick Response), SCM(Supply Chain Management) 등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남녀 코트, 수트, 앙상블, 자켓과 같이 더 복잡하고 섬세한 생산라인이 필요한 품목들은 자국에서 생산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비교적 운송시간이 길지 않으면서 수시로 추가 주문할 수 있는 베이직 스타일의 바지, 셔츠, 티셔츠, 브래지어 등 단품 품목들은 선진국의 저임 인접국에서 소싱하며, 어느 정도 패션성이 있으면서 시즌별 기획으로 이루어지는 지지·폴오버·가디건, 직물제 남녀 바지, 셔츠·블라우스, 직물제 남성 파카 등의 캐주얼 단품류는 한국, 홍콩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소싱하는 추세<sup>13)</sup>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2. 무역특화 경향에 따른 품목 특성

의류수출의 품목별 무역특화 경향을 보면, <그림3>, <그림4>과 같이 전반적으로 1990년대 초반에 강한 수출특화를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수출특화 경향을 이루었다. 1990년대 중·후반에 수출특화가 약화된 것은 1990년대 초반에 수출 대비 수입이 1 : 0.02 ~ 1 : 0.06 정도로 수입에 비해 수출 규모가 현저히 컸던 것이



<표2> 임금 및 환율의 변화 (1990~2000)

(단위 : 원, 원/미달러)

년도	임금	환율
1990		716
1992	513,712	788
1994	664,241	789
1995	768,043	775
1996	832,993	844
1997	866,361	1,415
1998	802,648	1,208
1999	843,625	1,145
2000	913,889	1,260

\* 임금: 의류봉제업의 월평균 임금

\* 자료: 통계청(www.nso.go.kr) 통계정보시스템(KOSIS)<sup>14)</sup>

199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품목들의 수출특화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 가운데도 <그림3>과 같이 (여성 편직제) 바지, (편직제 남녀) 앙상블, (직물제/편직제) 드레스, (직물제/편직제) 스커트, (편직제) 티셔츠, (남여 직물제/편직제) 셔츠·블라우스, (남여 편직제) 속옷, 저지·폴오버류 등 편직제 및 단품류 품목들은 1990년대 내내 강한 수출특화를 이루어 상대적으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였다.

반면 <그림4>와 같이 (여성 직물제/편직제) 코트류, (남성 편직제) 수트, (여성 편직제) 자켓, (남성 직물제) 앙상블, (남성 직물제/편직제) 자켓, (남성 직물제) 바지, 브래지어·콜렛류, (남성 직물제) 속옷 등은 일부 연도에 수입 특화되기도 하여, 대체로 같은 품목이라도 남성복이거나 혹은 좀 더 복잡한 생산기술이 요구되는 외의의 코트류, 수트, 앙상블, 자켓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표3> 임금, 환율과 각 품목 수출 단가와의 상관관계

	직물제 남성복 (SITC 841)	직물제 여성복 (SITC 842)	편직제 남성복 (SITC 843)	편직제 남성복 (SITC 844)	기타 의류 (SITC 845)
임금	-.757*	-.761*	-.010	.760*	-.573
환율	-.759*	-.662	-.407	.382	-.882**

\* : p<0.05    \*\* : p<0.01

### 3. 수출단가 분석에 따른 특성

의류수출 품목의 품목별 단가 변화를 보면, <그림5>~<그림9>와 같이 대체로 직물제 의류는 계속 하락한 반면 편직제 의류는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출단가의 상승 혹은 하락이 제품의 품질 수준 및 부가가치의 상승 혹은 하락과 관련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품의 수출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 환율, 경쟁구조 등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2>에서와 같이 1990년대 임금과 환율은 2배 가까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제품의 수출단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요인과 수출 단가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3>과 같이 임금 상승은 수출 단가와 부분적인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의 변화는 수출 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율 상승은 수출 단가와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부분적인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율 상승이 수출 단가 하락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세계 의류수출시장의 경쟁강도 면에서 볼 때, 1990년대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들의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저가 의류수출확대가 한국 의류제품의 단가 하락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 수입된 의류제품의 평균 수입 단가가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sup>15)</sup>과 중국 의류제품의 수출가격이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 시장에서 하락한 점<sup>16)</sup>은 한국 수출의류제품의 단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영향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만약 이러한 수출조건 하에서도 한국 의류 제품의 수출 단가가 상승하였다면 이는 제품의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5>, <그림6>, <그림9>의 직물제 의류제품의 수출 단가 변화를 보면, 직물제 의류는 환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1990년대 전반에도 하락 추세를 보였고 1997년 이후 환율의 급상승에 따른 단가 하락 시기에는 더욱 큰 하락 추세를 보여 제품 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직물제 의류 중에서도 단품류보다는 외의류의 수출 단가 하락이 더욱 커서 단품류보다 외의류의 고부가가치화가 더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림7>, <그림8>, <그림9>와 같이 편직제 의류는 수출 단가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편직제 외의류 중에서도 특히 남녀 양상블, 여성 코트 및 드레스 품목과 편직제 단품류 중에서 여성 스커트, 바지, 셔츠·블라우스 등의 수출 단가가 상승하여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1990년대 한국 의류수출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수출의류의 품목별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 의류수출의 특성을 밝히고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수출 비중, 무역특화 경향, 수출 단가의 측면에서 수출의류품목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징을 종합해 보면, 셔츠·블라우스, 저지·폴오버류 등의 품목은 총 의류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이들 품목에 편중된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트류, 수트, 양상블, 자켓, 드레스 등과 같이 더 복잡한 생산과정이 요구되면서 외의의 성격을 띠는 품목들의 비중은 감소하고 단품 및 캐주얼 특성의 바지, 스커트, 셔츠·블라우스, 저지·폴오버류, 티셔츠 등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한국은 단품 및 캐주얼 의류의 수출에 집중

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역특화 경향의 면에서는 편직제 및 단품류는 1990년대 내내 강한 수출특화를 보여 계속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였으나 같은 품목이라도 남성복 혹은 좀 더 복잡한 생산기술을 요구하는 외의의 코트류, 수트, 양상블, 자켓 등은 다른 품목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수출 단가 면에서도 직물제 의류는 계속 하락한 반면, 편직제 의류는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의류수출은 199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단품 및 캐주얼, 편직제 성향이 강한 품목들이 주요 수출상품으로 부각되고 경쟁력도 다소 향상되어 과거보다 편직제 의류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수출정책 및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유망 품목 및 수출시장 모니터링 정보 등을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저부가가치 품목에서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물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의류수출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주력 수출시장이었던 미국, 일본, 유럽 시장 위주의 수출에서 점차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수출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선진국과의 수출에서 취했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에서 벗어나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위주의 수출로 전환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며, 또한 수출시장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케팅 능력, 유연생산시스템, 글로벌 최적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http://www.kita.net)
- 2) 박훈 (2005). 섬유교역 자유화와 섬유산업의 대응방향.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정보*

분석, pp.32-46.

- 3) 김문정 (2003). 2005년 섬유교역자유화가 한국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
- 4) 두송용 (1999). WTO 체제 정착에 따른 EU 한국 QUOTA 보유 수출상사의 수출대응 전략.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6-32.
- 5) 김문정 (2003). Op.cit., p.28.
- 6) 김계숙 (2005).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과 한중 FTA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40-42.
- 7) 권기창 (2006). 섬유교역 자유화 시대 우리나라 섬유 의류산업의 생존 전략 : 섬유 수입 쿼터 폐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7-19.
- 8) Ibid., p.7.
- 9) Ibid., p.2.
- 10)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 11) OECD,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stics CD-ROM*.
- 12) 김승진 (1988). 산업내무역의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 13) Abernathy, F.H., Dunlop, J.T., Hammond, J.H., & Weil, D. (1999). *A stitch in time*. Oxford, pp.237-240.
- 14) 통계청 [www.nso.go.kr](http://www.nso.go.kr), 통계정보시스템(KOSIS).
- 15) 박훈 (2002). 미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들의 경쟁력 분석과 우리 섬유산업의 대비 수출전략. 산업연구원, p.77.
- 16)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1). 중국 6대 패션 시장 보고서, p.21.